

분류	주일 강단 메시지
제목	"구원의 내용"
성경	에베소서 2:1~10
일시	2018년 04월 08일
장소	휴스턴 안디옥 교회
설교	이 응남 목사

♣ 성경말씀 (에베소서 2:1~10)

1.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셨더니
4.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 요약 자료 ♣

구원의 내용 (에베소서 2:1-10)

1. 과거 문제를 해결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1)
 - 1) 모든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 2) 불순종한 모든 허물이 해결되었습니다.
 - 3)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은 자였다가 살아났습니다.
2. 현재 문제를 해결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2)
 - 1)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 2)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서 벗어났습니다.
 - 3)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서 해방되었습니다.
3. 미래 문제를 해결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6-7)
 - 1)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십니다.
 - 2)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십니다.
 - 3)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녹취 자료 ♣

- 지난달은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길은

하나 밖에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여기에 완전 결론 나도록 메시지를 주셨다. 여러분, 언제든지 그리스도 이 외에 '다른 복음' 없다. 왜냐? 하면...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 해결 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운명은 바꿀 수가 없다. 어제 달라스에서 남부 지역의 어린이 사역을 하시는 우리 교사 분들 모임을 가졌다. 가고 오는 동안에 함께 했던 우리 교사들과 얘기를 같이 나누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에 어린이 사역을 하시는 한 집사님이 계신다. 그 집사님이... 제가 궁금하더라. 여자 이름 치고는 조금 낮설다. 보통 이렇게... 여자라면 예쁘장한 이름으로 자녀들 이름을 짓잖은가? 근데 제가 옛날부터 궁금했다. "집사님, 집사님 이름이 조금 좀... 남다른다."하고 제가 여쭈었다. 그랬더니 그 분이 대답을 하더라. 자기가 사실은... 지금은 치유 됐는데요. 옛 날에는 그 것 때문에 많이 늘렸단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 말로 자기가 호랑이 떠란다. 그러니까 호랑이 떠인데... 호랑이 떠인데다가 태어난 시간이 새벽 2시라는 거다. 그러면서 호랑이가 가장 활동하기 좋은 시간에 태어났다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는 남자로 태어났다면 시대를 움직이는 장군감이 되거나 나라를 살리는 장군이 됐을 텐데 여자로 태어나서 자기가 그런 운명에 처해 있었다고. "근데 만일 내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몰랐었다면 나는 그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서 참 이상한 팔자로 살아갈 뻔 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태어난 날, 태어난 시간, 태어난 그 때... 여러분은 어디 속에 있었는가? 사주, 팔자, 운명이라고 하는 이 죄의 울무와 사단이 뿌려놓은 이 사탄의 함정 속에 모든 사람은 '피할 수 없는 길'을 가게 된다. 그 길을 보고 뭐라고 하는가?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그러는 거다. 여러분은 어떤가? 여러분의 이름... 누가 지어 주었는가? 부모님이 최고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는가? 이 딸, 이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이 딸과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하면 그 이름을 대충 이름 짓겠는가? '개똥아~' '소똥아~' 뭐 이러면서...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지 않겠는가? 분명히 아이의 년, 월, 일, 시... 거기에 팔자와 운명을 묶어서 최고의 이름을 짓지 않는가? 저 역시... 우리 집안 역시 가문이 사주팔자, 운명 그대로 묶여 살던 집안이다. 다행히 저를 시작으로 해서 저의 형님들 그리고 저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다. 그런데 막내가... 남동생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다.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거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다. 아이를 낳았는데 아~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는가? '아... 이제 딸을 낳았으니... 손녀딸이 낳으니 이 딸 이름을 내가 지어주리라.' 하고 비싼 돈을 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왔다. 이름이 뭐냐? 길녀. 이길녀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가지고 온 것이다. '길할 여자다.' 이런 뜻이다. 아...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요즘 이런 이름으로 자녀 이름을 짓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그 비싼 돈을 쥐가지고 길녀..." 그랬더니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변명을 하는 거다. 그래도 돈을 주고 손녀를 생각해서 뭐... 이름 잘 짓는다는 그 작명가한테 가서 이름을 지었는데... 대충 짓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그래가지고 설명을 쭉~ 하더라. 아... 그 작명가가 이름을 짓는데 딸아이의 년... "언제 태어 납니까?" "몇 월 달입니까?" "몇 시에 태어 납니까?" 이걸 다 따지더라. 그랬더니 사주를 보고 팔자를 보고 탁~ 둘러보는데... 지을 이름이 없더라는 거다. 도저히 애는 이름이 안 나온다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지을 수가 없었다는 거다. 그래가지고 '아~ 애는 특별한 아인가보다.' 해가지고 '길녀'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변명을 하시더라.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길녀라고 할아버지는 짓기를 원했는데 아들이 반대해서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지금 불려지고 있다. 저의 집안이 그랬었다. 그러니까 이름 하나도 제멋대로 못 짓는다. 삶도 자기 마음대로 살 수도 없다. 왜 이렇게 됐는가? 여러분이 태어나면 서부터 죽을 때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세 가지 문제 속에 빠

저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문제가 뭐가? ‘과거 문제’ 이거 해결하셔야 된다. ‘오늘의 문제’ 해결하셔야 된다. ‘미래의 문제’ 해결하셔야 된다. 근데 이거 해결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해결 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체념하기를 ‘운명이야.’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네 팔자야.’ ‘그게 네가 타고난 복이라 는 거야.’ 그러려니~ 하고 살아간다. 맞는가? 여러분? 운명은 바꿀 수 있는가? 팔자는 바꿀 수 있는가? 못 바꾼다. 여러분. 바꾸고 싶지만 못 바꾼다. 심지어 제가 아끼는 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다. 이 제자가 자기 이름에 대해서 너무 상처가 있는 거다. 자기 이름이 너무 안 좋다는 거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운명과 사주팔자에 지음 받은 자기 이름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다. 결국은 끝끝내 있죠. 법원에 가서 이름을 바꿨다. 그런데 되느냐? 안 된다. 이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게, 근본을 바꿔야 되는데... 무슨 근본을 바꿔야 되는가? ‘과거의 문제’, ‘오늘의 문제’ 미래에...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근본의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구원 받지 않고서는 바꿀 수가 없다. 오늘 저는 ‘구원의 내용’... 구원이 도대체 무엇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저 역시 교회생활을 하면서 제일 고민됐고 제일 확신 없었던 게 뭐였겠는가? ‘구원... 어떻게 받지?’ ‘내 지금 이 상태로... 내 이렇게 살다가는 결국 하나님 앞에 걸코 나는 구원 받지 못 할 텐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열심히 일하면 될까?’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될까?’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될까?’ 온갖 몸부림을 쳤는데... 마음 한편에서는 ‘그런다고 되냐?’ ‘그런다고 구원이 되냐?’ 늘 두려웠던 게 뭐가? ‘나는 구원받지 못 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기도 응답도 해도 없고 결국은 멸망 할 수밖에 없겠다.’ 이것을 저는요 늘 불안해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 인생에 완전 답과 결론을 낸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 증거는 하지만은 이 말씀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증거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뭘로 서시겠는가?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지식? 세상의 응답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확증... 나의 구원을 확증 하는 무엇이 되는가?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 증거 중에 증거가 뭐가? 말씀이다. 말씀에서 구원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이것이 뭐가 되는가? 나의 간증이 돼야 되고 나의 고백이 돼야 되고 누구를 만나도 간증할 수 있는 언약이 되어져야 된다. 여기 함께 말씀을 받는 휴스틴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나의 구원’에 확실한 말씀을 정리하시라. ‘내 평생에 이게 나의 구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나의 구원은 이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언약과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이단들이 우리를 속인다. 제가 한참 이 복음운동 하기 전이었었다. 구원의 확신 없이 교회만 다니고 있었을 때였다. 그 때 저는 사회 일을 하고 있었다.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까지 회사 일을 쭉~ 하던 중이었었다. 그런데 어느 사무실을 갔는데 거기에서 사무실 안내 데스크에서 앉아 있는 예쁜장한 여자 아가씨가 저를 대뜸 보더니 “아저씨, 구원 받으셨어요?” 이러는 것이다. 어... 제가 찢리더라. “구원 받았지.”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표정 관리 해가면서 “구원 받았지.” 그랬더니... “언제 받았어요?” 이러는 거다. “언제 받았어요?” “그날짜를 알아요?” 이러는 거다. “글쎄... 구원 받은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선생님은 태어난 날짜는 알잖아요. 몇년, 몇 월, 며칠, 태어난 것 알잖아요. 근데 왜 구원 받은 날짜는 기억 못 해요?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맞는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가씨가 이단자였다. 이 단 이었었다. 이단이 우리를 파고드는 약점이 뭔지 아시는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었다. 근데 구원이 뭐가? 이 부분에 대해

서 기존 신자들이... 그 중에 제가 한 사람이었는데. 흔들거렸었다. ‘구원... 언제 받는다?’ ‘구원... 어떻게 받는다?’ ‘구원? 왜 받아야 되는가?’ 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의 거리가 없으니까 얼버무리는 거다. ‘아, 나는 모태신앙이야.’ ‘아,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어.’ ‘아이, 내가 교회에 얼마나 충성, 봉사하는데?’ 그게 구원이 아니다.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던 말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증거 했다. 그러면 에베소서에는 뭐가? ‘구원이 뭐냐?’ 이것을 확실 하게 증거 하는 게 바로 에베소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구원에 대한 감격’, ‘구원의 내용’, ‘구원의 그 축복들’을 여러분이 나의 것으로 확인, 확신하고 또 확증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렇다면 구원은 누가 시작 하셨는가? 구원은 언제 시작 되었는가? ‘나의 구원’이 언제 시작 되었는가?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에 잘 나와 있잖은가?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보기 전에 에베소서 1장을 꼭 보시라.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준비하셨다는 거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66권 중에 우리 구원의 계획이 바로 창세전에 시작 되었다. 놀랍지 않은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언제... 모년, 모월, 언제, 누구... 전도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그 때가 구원 받은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이 세상을 알기도 전에...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준비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셨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 성경에 있던 말이다. 한 번 확인해 보겠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시라.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이렇게 말하신다. **“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성경에 뭐라고 돼 있는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 하셨다.”** 라고 되어 있다. 그 예언... 예정 된 그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 받기를 원하신다. 라고 되어 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심지어 사도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미 감춰졌던 것이라고 기록 돼 있다.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이 감춰졌던 비밀이었었다. 근데 이제는 나타내신바 되었고 영원토록 영광을 세세토록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마무리 하고 있다. 그게 바로 뭐가? 구원의 내용이다. 그 구원의 시작을 누가 하셨다고 하는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도록 시인케 하셨다는 거다.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나에게서’가 아니다. 누가 아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찢겼? 그런데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결국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 필요하다. 눈물... 날 수도 있다. 치유가 될 수도 있다. 몸에 증거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그건 증거가 아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의 증거가 뭐가? 말씀이고 말씀의 증거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곧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생명을 얻었고 생명 가진 자는 곧 뭐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그 증거가 누구로부터 시작 됐는가? 하나님으로 시작 됐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

분의 구원의 시작은 누구다? 하나님만 말이다. 흔들리지 마시라. 하나님은 창세 전에 '나의 구원'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차매 문제가 어땠든... 사건이 있었든... 내가 어떤 질병이 있었든 간에 그런 과정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문제와 사건을 일으켰고 그런 어려움을 주셨던 거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을테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되는가? 구원 받기 위한 축복의 통로란 말이다. 아무 걱정 하지 마시라.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지 마시라. 문제는 문제 아니다. 그건. 고통? 고통 아니다. 그저. 죄와 내가 갖고 있는 문제와 비교 해 보시라. 어떻게 진짜 문제란 말이다. 그 고통은 어디서 왔는가? '죄'에서 왔다. 그 죄는 해결할 수 있는가?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 하면서 여러분의 구원이 언제부터 시작 됐냐?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 하셨다.라고 돼 있다. 그럼 구원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 있을 것 아닌가? 어떻게 나를 구원 하셨는가? 방법은 하나였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방법이다. 그래서 꼭 기억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 단어는 꼭 기억하여야 된다. 무슨 단어인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단어.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단어.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다. 방법.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뭐 하셨다? 이뤄 놓으셨다. 그러면 구원의 이 비밀을 가진 자가 할 것은 뭐냐? 기도 밖에 없다. 무슨 기도를 하면 되는가? 그게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에 나와있다. 구원 받은 성도는 이런 기도 하시라. 앞으로. 나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라고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돼 있다. 그게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이다. 저는요, 이 기도문을 보고 나서 내 기도가 바뀌었다. 예전엔 뭘 달라... 이것 달라... 육신적인 거 구하던 그 기도 제목을 다 버리고 이제 뭐냐? 제 기도제목은 크게 네 가지다. 여기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첫 째가 뭐냐? 17절부터 19절까지 한 번 보겠다. 17절에 이렇게 기록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다. 구원 받은 성도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 분의 자녀가 됐다면 내가 구할 첫 째 기도제목은 뭐라고요?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이거다.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분의 마음을 알아야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 아는 비밀이 뭔지 아시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는데...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부르신 여러분을 향한 소망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그 소망이 뭐겠는가? '임마누엘'이다. '함께'하는 거다. "주께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에 열두제자가 나왔더라.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며..."라고 되어 있다. '함께.' 바로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지었고 죄와 사단, 지옥의 권세로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려고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또 육신을 입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렇게 말한다. "그 기업의..."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라고 되어 있다. "성도 안에 있는 풍성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구원 받은 자가 누려야 될

축복이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 해. 그런데 이 축복을 많은 사람들이 못 누리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되어 있다. '하나님의 능력.' 그게 뭐겠는가? 지난 주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들었던 메시지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사망이 너에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모든 '사망'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 했는가? '죄'에서다. 이 죄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오는 이 '사망의 문제'로 온 '죽음과 지옥 문제'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부활로 끝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참여한 자들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열매가 됐듯이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 첫 열매에 이어 계속 되는 '부활의 열매'로 여러분이 주께로 서게 돼 있던 말이다. 그게 능력 중에 능력이다. 죽음도 우리를 못 막는다.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고 사도바울은 "뿔대를 향하여 지금도 달려간다." 라고 고백으로 하고 있다. 이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보고 뭐라고 하는가? 교회라고 한다. 교회. 그게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설명한다. 구원이라는 것을 누가 시작 했으며... 그리고 구원 받은 자가...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며... 그리고 구원 받은 자가 어떤 기도를 할 것이며... 구원 받은 자의 공동체인 교회는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설명 해준다. 그래서 구원 안에 다 있다. 그러니까 구원 받은 성도들을 성경에는 교회라고 말한다. 그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되어있다. 그리고 여러분은 뭐냐?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주인이 여러분의 머리라면 여러분은 뭐냐? 그 분의 몸이다. '몸.'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 그러다. 그 축복 속에 우리가 부름 받았다. 그러니까 휴스턴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성도를 지체로 한 몸이 된 교회라는 사실. 이게 바로 구원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기도'가... '구원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메시지가 1장에 기록 돼 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한 번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깊이 묵상해보시라. 묵상 하시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구원의 내용을 잠깐 점검하도록 하겠다. 자, 구원이란 무엇이겠는가? '구원.' 오늘,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에는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 신약성경 중에 베드로전서라는 성경이 있다. 이 베드로가 썼다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1장 9절로 11절에는 이 구원은 예수를 믿는 것이 곧 구원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록 돼 있다.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이렇게 기록 됐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을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 된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라고 되어 있다. 구원을 계속 생각 했다는 것이다. 선지자들이 고민하고 기다리고 양망하고 소망 했던게 뭔지 아시는가? 구원이다. 구원.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야와 그 오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다. 그것을 계속 생각 했다고 그러다. 오늘 구원의 내용이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고민했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고민 했는데 그 상고하던 그 분이 우리에게 준 구원이 뭔지를 설명 해주고 있다. 그래서 크게 여러분 구원은 세 가지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한다. 지금 딱 기준으로 해서...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전의 시간을 뭐라고 하는가? 과거라고 한다. 그 이후의 시간을 뭐라고 하는가?

미래라고 그러다. 그러니까 구원은 한 쪽 편만 치우치는게 아니다. 과거야 어쨌던간에 지금만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기복주의이다. 그런 신앙생활은... 그건 구원 받은 사람 아니다. 그건 현세주의라고 한다. 육신주의라고 그러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 과거도 모르고 현재도 모르고 '아, 죽은 다음에 천국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도 괜찮아. 견뎌! 참아! 그 날 가면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그 날 위로 받으면 돼!' 하고 미래에 저 세상을 바라보며 지금 고난을 참고있는 그런 것도 구원이 아니다. 대학 시절에 막~ 데모를 많이 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하여... 학교에 대하여... 많은 사회의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했다. 그중에 어떤 사람은 막 몸에다가 기름, 계스를 뿌리고서 불을 질러가지고 자살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투쟁! 투쟁!" 민주화를 주장하다가 경찰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경이라는 전투경찰의 방망이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터지고 손, 발이 부러지고 병신이 돼서 평생 원망하며 사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런 시대가 있었잖은가? 그 때에 제가 본 책이 하나 있다. '죄 많은 이 세상으로 만족한가? (죄많은 이세상으로 충분한가)' 송인규라고 하는 한 목사님이 쓴 책이다. 거기에... 표지에 이런 그림이 딱 그려있다. 한 쪽에서는 막 으쌰! 으쌰! 하고 데모하고 있는데 두꺼운 안경을 쓰고 한 쪽에서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하는 한 청년의 모습이 있다. '아, 세상은 저렇게 죄가 많으니까 나는 죽은 다음에 천국만 소망해야지.' 이런 그림이었다. 보통 기독교가 그랬다. '아, 지금은 사회의 불의, 이런 재앙들을 피할 수 없지만 죽으면 우린 천국 갈 거야. 사회와 아예 무관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다. 여러분, 구원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인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그것도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내가 노력 해서 죄 용서 받으라고 하고 회개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대로 막 열심히

살지만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죄와 죄의 이 욕망들은 꺾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막~ 고행하고 어려운 금식하고 막 여러 가지 몸부림을 치는 그게 바로 왜 그런가? 천주교인들이나 많은 종교인들이 지금 뭣 때문에 힘들어 하는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한 욕망과 이 죄성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게 뭐가? "회개하라!"였었다. "네 죄를 용서 받으라"는 거다. 안 되지 않는가? 회개를 해도~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에 대해서 너무 오해된 구원을 많이 갖고 있다. 저 세상에 대한 구원? 아니다.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구원? 아니다. 내가 몸부림을 쳐서 씻지 못한 과거에 대해서 아파하는 그런 구원? 아니다. 여러분. 구원은 뭐가?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 뭐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게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 그게 뭐가? 원죄다. '원죄.' 아담 이래로... 물고기가 물을 떠났는가? 그게 죄다. 나무가 땅에서 뽑혔다. 그게 죄다. '하나님을 떠난 것.' 그걸 보고 죄라고 말한다. 그 죄로 인하여 뭘 잃어버렸는가? '생명'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죄가 무섭지만은 죄보다 더 무서운 건 뭘냐면 생명을 잃어버린 거다. 하나님의...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데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떠났다. 뭐로?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것이다. 허물과 죄로 끝났다. 그래서 뭐가 안 되는가? 하나님과 이게 뭐가? 생명의 교체가 안 된다. 이게 언제 시작 됐는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걸 사람들이 아는가? 모른다. 종교인들이 해결 못 한다. 율법으로 이걸 해결하지 못 한다. 결국은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피'에 있다고 레위기 17장 11절에 있다. 그래서 결국은 '죄 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가?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그럼 누가 피를 흘려야 되는가? 죄 없는 분이 피를 흘려야 된다. 그럼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고 전부 원죄 아

래 빠져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데 누가 나를 위해 피를 흘려 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과거의 영원한 죄와 그 생명에서 잃어버린 이 저주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 하시려고 구약에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렸던 피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 피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은 증거하고 있다. 자, 보겠다. 제가 읽어보겠다. **"그러므로 형제들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라고 돼 있다. 아시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를 받는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 감히 예배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이렇게 예배 할 수 있는게 아니다. 거기는. 거기는 죄가 없어야 되고 죄 문제를 해결 받지 않고서는 절대 제사장도 함부로 갈 수 없는 곳이다. 근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짝 찢어졌단 말이다. 언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시던 그 날...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짝~ 찢어져 버렸다. 뭘 해결한 것인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성소에 담대히 올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 놓는 것이다. 그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설 수 있도록 했던 말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영원히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 비밀이 바로 예수의 피! 곧 십자가다. 예수의 피와 그 십자가가 아니고선 절대 과거의 죄는 해결할 수 없다. 근데 예수께서 그걸 다 끝내버렸다. 이걸 이름하여 '과거 문제'라고 한다. 그걸 누가 해결했는가?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다 끝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다. 자, 그러면 '현재 문제'는 뭐가? 아담으로부터 지금, 앞으로도 계속 역사하고 있는 이 죄와 저주를 피할 길이 있는가? 못 피한다. 웬지 아시는가? 이 죄를 가지고 계속 죽음과 사망을 법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영인 사단이 있기 때문이다. 사단은 아담 때로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지옥 가기 전까지는 계속 활동한다. 이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사실은 크게 저축 받지 않는다. 지금도 활동한다. 지금도 그 영향력은 대단하다. 정치인을 잡고... 경제인을 잡고... 어둠의 흑암경제를 잡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세간으로 잡고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도적질 하고 있다. 우리의 원수가 누군지 아시는가?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 아시는가? 우리가 이를 갈고 싸워야 될 데가 누군지 아시는가? 우리를 이렇게 죄 가운데 빠트리고 저주 가운데 빠트리고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고통받게 만들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저주와 재앙을 일으키는 주범이 누군지 아시는가? 부모가 아니다. 우리도 아니다. 바로 우리를 이렇게 유린하고 멸망시켰던 악한 존재가 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왔는데 그 도적이 이름이 뭐라고 되는가? 에베소서 2장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기록한다. 아시는가? 여러분? 이 어마무시한 이 마귀, 공중권세 잡은 귀신의 왕인 마귀를 누가 이기겠는가? 아담도 무너졌는데... 수많은 세상의 정치인들이 그 앞에 다 무릎 꿇어버렸는데... 종교인들도 다 무릎 꿇어버렸는데... 역사가 그 앞에 다 무릎 꿇어버렸는데... 지금도 역사를 움직이는데 누구인가? 지금 세상을? 세상 경제를 누가 움직이는가? 지금? 정치인들을 누가 움직이는가? 지금? 사회를 누가 움직이고 문화를 누가 움직이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 에베소서 2장 2절... 여기에서 해방을 받으셔야 된다. 지금 이 문제에서 우리는 아무 그게 나와 상관이 없으셔야 된다. 그게 구원 받은 자의 당당함이다. 세상 유행과 우리는 상관없다. 2장 2절에 이렇게 말한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되어있다. 한 마디로 말하면 누군가? 사단이다. 지금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라고 했나? 마귀의 문제다. 절대로 우리는 마귀와 사단? 그의 줄개인 귀신들을 절대 이길 수가 없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분이 오셨다.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그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많은 사역들 중에 대표적인 사역들이 뭔가? 귀신들린 자들을 치유하는 거다. 묶인 자를 해방시키는 거다. 눌린 자를 거기에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이 구원 사역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는가?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2장에 기록 돼 있지 않은가? 22절로 29절. 거기에 그렇게 기록 돼 있다. 귀신이 들려서 눈을 못 본다.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말을 못 한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했다. 깜짝 놀랐다. 바리세인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 귀신들린 자를 고쳤구나!”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 하시는가? “내가 만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 사람을 고쳤다면 내가 마귀와 함께 지금 같은 나라에... 어떻게 마귀와 귀신이 대적 하나? 그럼 분쟁하는 나라가 설 수 있겠나?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라.” 이랬던 말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만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이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니라.”** 결국은 귀신은... 사단은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누탈할 수 없다.”라고 기록 돼 있다. 결국 ‘강한 자’가 누군가? 세간을 잡고 있는... 세상을 누가 붙잡고 있는가? 이게 사단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라고 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 거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원의 투구로부터 평안의 복음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대적하라고 돼 있던 말이다. 싸우지 않으면 마귀는 이길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기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깃발을 사탄의 머리에 완전히 박아버렸단 말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탄의 권세를 짓이겨버렸다. 사단은 대가리가 없다. 지금, 버둥거릴 뿐이다. 지금, 뱀 대가리 한 번 뱉으면 어떻게 되는가? 대가리가 뱉힌 이상은... 그 대가리 뱉힌 이 뱀은 더 이상 힘이 없다! 꼬리는 흔들 뿐이다. 죽어가는 말알일 뿐이다. 그걸 누가 깨뜨렸는가?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마귀와 그의 일을 멸하셨단 말이다.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하는가? 참 된 나의 왕이란 말이다. 구원이 뭐라고 했나? 과거의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 되는 것. 지금 역사하는 사탄의 그 권세로부터 빠져나와 승리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다. 자, 과거문제 끝났다. 현재 문제인 사탄 문제 끝났다. 그렇다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만 남았는가? 오고 오는 여러 세대들에게 나타날 증거를 하나님이 계속 줄 것이다. 아신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분명히 증인으로 설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그 후대들이 또 다른 후대들에게 또 증거가 될 거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미래다. ‘미래.’ 여러분의 미래는 불안하지 않다. 굉장히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죽음에 대해서 아무 두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죽음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다.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 했나? 중요한 단어만 꼭 기억하시라. 과거문제 뭐라고 했나? ‘죄.’ ‘원죄’를 얘기한다. 죄 문제 끝. 지금 문제는 뭐라고 했나? ‘사탄’, ‘마귀’, ‘귀신’의 문제... 예수님이 끝냈다. 그리고 미래문제 뭐가? ‘죽음과 지옥’, ‘내세 문제’ 완전히 여러분은 보장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은 ‘과거문제’ 해결, ‘지금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그래서 이 일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다.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거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의 그리스도신가? 나의 그리스도!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다. 그 어떤 행위나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게 아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시행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구원을 다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값없이 은혜로 주셨다. 노력으로 받은거 아니다. 행위로 받은거 아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받은 것 아니다.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 주셨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니다. 여러분의 선행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나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전적인 뭔가? 하나님의 공훈과 은혜뿐이다.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그러는가? 선물이다. ‘선물.’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선물. 뭐가 있는가? 결혼 반지? 목걸이? 집? 자동차? 각종 선물 많이 받으셨죠? 그 선물과 구원의 선물과 비교가 되는가? 그래서 1부 예배 때 그랬다. “더 이상 선물 기대하지 마라. 구원을 받았는데... 최고의 선물을 받았는데 무슨 또 선물이 필요하냐? 엄마 조르지 마라. 아빠 조르지 마라. 남편, 아내 너무 조르지 마라. 선물 달라고 양탈부리지 마라. 다 받았다 이제.” 그러니까 애들이 보니까 멀지 않아 울... 생일 울 애들은 막 선물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와 비교가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뭔가? 구원 받으셨다. 행위에서 받은거 아니다. 세상의 어디에서 출발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해야 될 것이 뭘겠는가? 에베소서 1장 10절.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또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하여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 결국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원 받았다면 하나님이 이런 응답과 증거를 반드시 주신다. 이 응답의 증인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한다.

휴스턴 안디옥 교회 (http://www.houstonantioch.org)	
담임목사:	이 응남 목사
교육목사:	황 병철 목사
전도사:	권 예나 전도사
연락처:	(713) 907-0854
이메일:	rutc-christ@hotmail.com
자료작성:	휴스턴 안디옥교회 (배성일 장로)